버려지던 쌀,
다시 숨쉽다.

싸라기로 빚는 프리미엄 지역특산주

숨 (soom) · 삼양주 탁주



300 ml	7도	15,000원
용량	저도수	소비자가

목차

01 제품 개요 Product

02 업사이클 — 버려지던 쌀 Upcycle

03 저도수 · 선물하는 술 Low ABV · Gift

04 원산지 · 농가 상생 Origin

05 취급 문의 Contact

제품 개요

버려지던 쌀을 되살려, 선물할 가치를 담다



숨 · SOOM

GERBERA LABEL

도정 과정에서 버려지던 '싸라기'를 밑술로 써,
삼양주 방식으로 빚은 프리미엄 지역특산주입니다.
버려지던 쌀을 되살려 선물할 가치를 담았습니다.

용량	**300 ml**
도수	**7 도**
가격	**15,000 원**
유형	**삼양주 탁주**

버려지던 쌀을 되살리다

업사이클 원료

54%

원료 원가 절감

한 병의 원료비는 약 200원

싸라기 매입 단가

kg 기준

300원 → **1,400원**

도정 부산물로 버려지던 싸라기를

싸라기는 도정 과정의 부산물로, kg 300원에 버려지던 쌀입니다.
이를 밑술 원료로 전환해 원료 원가를 54% 낮췄습니다.

브랜드가 가진 세 가지

왜 '숨'인가

01 저도수 · 선물

7°

독하지 않은 7도. 거베라 꽃 라벨로 선물·소장 가치를 더했다.

02 농가 상생

4배+

칠곡 싸라기를 수매가의 네 배 이상으로 매입 — 원료 조달이 곧 농가 소득.

03 거베라 에디션

한정

'버려지던 쌀이 꽃으로 핀다'는 서사를 담은 한정 패키지.

취급 문의

식당 · 바 납품	전통주 주점 · 바 입점 · 납품가 협의
선물 · 세트	1병 15,000원 · 기업 · 명절 선물
팝업 · 행사	시음 팝업 · 페어 참여

술버켓
대표 최민우 · @sool.bucket

숨 · SOOM